



# 쓰레기 베이스 재활용 대책 필요

**정** 보는 시간 의존적이다. 시간을 멈추게 한다면 정보란 존재하지 않는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정보(데이터)를 만들 때도, 만든 데이터를 이용할 때도 시간의 함수가 적용된다. 인간이 시간에 따라 늙어가듯이, 삼차원 세계의 만사만물도 세월에 따라서 변해가듯이, 정보가 바로 시간으로 표현되거나 가치가 시간으로 정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이 생겼나 보다. 세월이란 시간을 의미하긴 해도 우리의 느낌은 아무래도 몇 년이라는 시간단위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우리의 느낌은 세월이라는 시간보다는 훨씬 더 짧은 것 같다.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를 나타낼 때 bps(1초 동안의 비트수)로 표현한다. 이것을 'baud rat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이 정보의 처리속도를 나타내는 수도 있고 전송속도를 표현하는 수도 있다. 20여년전에 사용하던 텔렉스라는 정보전송 장비도 1초에 50개 비트의 속도로 오가는 장비였다. 즉, 50bps였던 것이 점점 발달하여 오늘날은 1초에 수백만 비트의 속도로서 정보를 처리하거나 전송하는 기술이 보편화되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란 것도 시간 의존적이다. 그냥 처리속도, 전송속도뿐만 아니라 축적 및 검색도 무척 시간을 탄다. 다량의 정보(데이터)를 축적하는데 소요되

는 시간과 공간을 단순히 산술적으로 산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정보의 해독능력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다. 재치가 번득이는 젊은 사람과 대화를 해본 결과 일상적인 언어의 속도가 자기의 해독속도(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답답해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그래서 해독속도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과의 대화는 거의 실패해 버리고 만다. 대체로 고령자들의 언어표현의 습성은 너무 느려서 정상적인 노소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수가 많다. 다시 말하면 표현속도와 해독속도가 같아야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간 대 인간의 정보교류에도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원리가 정보통신에도 적용된다.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정보가 인간의 눈으로 읽어들이는 적정속도보다 고속이면 전송되어 오는 정보가 아무리 좋은 정보일지라도 이미 정보가 아니고 쓰레기에 불과하다. 즉, 표현속도와 해독속도 다시 말하면 출력속도와 입력속도가 다르다면 이 정보는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보가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경우는 축적정보(데이터)의 양이 너무 많아 검색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해독능력에 맞추지 못한다면 이것은 정보가 아니고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만다. 또한 검색시스템이 정보이용 습

관에 맞지 않아도 그렇다.

옛날 이야기이지만 필자의 친구 한 분은 문헌 한 건을 찾기 위해 부산에서 대구로, 서울로, 춘천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도서관이나 장서각의 먼지투성이 서고에 들어가서 며칠씩 고문헌집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당시에는 복사기도 없었으므로 일일이 손으로 베껴왔다고 한다. 그것을 종합분석해서 논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논문을 학회에 제출하고 제출된 논문을 출판하고, 출판된 학회지가 우편으로 발송하고, 그제서야 비로소 독자에게 읽히게 된다. 이때까지 대체로 1년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는 정보생산에 1년이 걸렸지만 오늘날은 불과 1주일이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정보생산능력이나 이용능력이 빨라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용되지 않는 정보는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다. 모처럼 돈을 들여 만들어서 가치를 부여한 정보가 쓰레기로 변해서야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이것을 필자는 [쓰레기베이스]라고 이름을 붙여 본다. 쓰레기베이스는 우선 시간합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만든 데이터베이스로서 도무지 여러가지 이유로써 이용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부르고 싶다.

이 가운데도 컴퓨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표준화가 되지 않고 만들어진 데이터가 쓰레기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통신망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귀중한 데이터가 쓰레기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다. 무슨 뜻으로 이렇게 쓰레기를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데이터를 표준화하지 않고 무조건 돈을 주어서 만들게 하였기 때문에 생긴 부작용일 것으로 본다.

이제 [데이터]인지 [쓰레기]인지를 판별하는 작업을 서둘러서 쓰레기라고 판단되는 것은 조속히 [재활용]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를 정하여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야 [쓰레기]로 인한 공해(시간낭비)를 제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필자는 최근에 인터넷을 통하여 [Telework]에 관한 자료를 검색해 보았다. 사흘인가 나흘만에 무려 4시간의 온라인 연결끝에 관심사에 가장 가까운 자료를 입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번역하고 읽으면서 약 1주일간 정독하여 해독하려고 애를 쓴 일이 있다. 내용인즉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공무원 650명을 지명하여 재택근무(원격근무)를 하도록 발령내렸으며 민간기업에게도 그런 제도를 채택하도록 권장하였던 바, 2년후에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10부제에 해당되는 교통문제 완화효과를 보았다는 결과보고였다.

이는 도심지내 사무실의 공간절약이라는 뜻도 되지만 교통문제 완화, 나아가서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보면서 중국에 가서는 환경정화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보고서를 읽고 감명을 받았다. 이러한 제도실험을 통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 중에서 한가지는 캘리포니아주내에 13개의 [텔레센터(Tele-center)]를 설치하여 각 센터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원격근무자]들이 자택 또는 센터에 와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곳이 XX플라자란 이름으로 도처에 있기는 하지만, 모두가 특정 시스템만을 위한 센터가 되어서 진정한 의미의 텔레센터는 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만약에 어느 텔레센터가 있어서 국내의 모든 재택근무 가능 시스템 모두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중복된 데이터베이스가 줄어들 것이 아닐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레기]를 좀더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재활용]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DC**

(상명대학교 강사)